

# 외상거래 많아 금융 위기로 부실농가 급증

## □ 취재/이보균 과장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1년이 지났다. 그 1년동안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IMF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

지난 1997년의 환율은 달러당 9백47원이었던 것이 1998년도가 시작되면서 일부 1천9백50원까지 치솟는 등 금년 평균 1천3백50원에서 1천4백원대로 기록되리라는게 정부당국의 전망임을 감안할 때 결국 원가절감은 1년사이 30% 이상 떨어진 셈이되고 말았다.

이처럼 IMF 체제에 의한 국내 경기변화에 우리 축산업계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갑작스런 환율 폭등으로 사료업계에서는 원료로 쓰일 곡물을 제때 구입하지 못해 공장 가

동이 중단될 정도였다.

이때 육계농가에서는 평상시 외상 구매에 의존하던 거래 방식을 깨고 어렵게 현금을 마련하여 사료회사 측에 입금을 시켰음에도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결국 다수 농가가 사육 중인 닭을 굶기는 일이 속출되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사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출하를 상당기간 남겨 놓은 계군들까지 조기 출하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년에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극한 어려움을 육계인들을 비롯하여 전양계농가가 겪게 되었고 그결과 육계(종계포함)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사육수수를 감축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 육계농가

는 입식을 자제하는 동시에 적정 숫자보다도 적은 양을 입식했고, 특히 회전수를 줄이기에 이르렀으며, 이때 종계 사육농가는 무모할 정도로 강제 환우 내지 조기도태를 병행하여 실시하므로써 1998년 시작과 함께 업계의 변화에 불을 당겼다.

### 1. 육용종계 입식 현황

IMF를 맞이하기에 앞서 종계인들은 과잉생산에 따른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종계입식은 워낙부터 감소가 시작되었다.

지난해에 입식된 육용종계는 3백94만7천4백20수로 전년 대비 5.6%의 감소에 그쳤다. 그러나 1998년들어 10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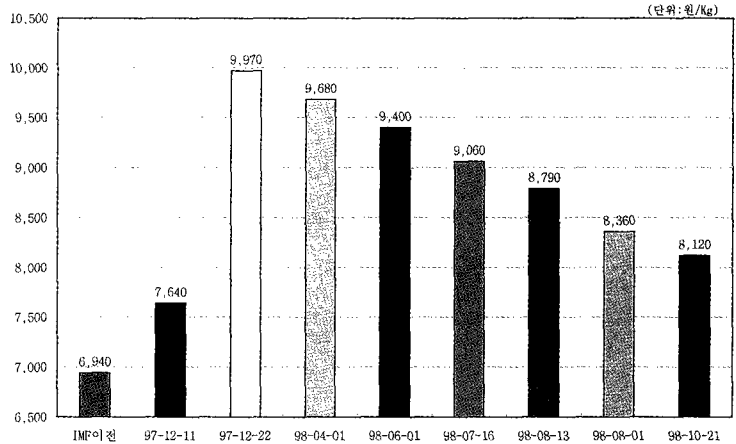
입식된 종계는 2백76만5천60수로 21.9%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이후 사료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지난 1/4분기에 입식된 종계는 71만5백60수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38%의 감소가 이뤄졌다. 반면 2/4분기는 81만4천7백50수로 감소 폭은 11%로 좁혀졌으나 또 다시 3/4분기 들어 94만4천수가 입식되어 20%가 줄었다. 반면 9월 이후 육용실용계 값의 상승세가 지속된데 힘을 얻은 듯 10월의 종계입식은 29만5천7백50수로 전년동월 대비 0.3% 감소에 그쳤다. 특히 대부분의 종계인들이 1999년도의 종계업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 종계입식에 따른 과열 현상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 2. 사료가격 동향

### 가) 국제곡물가격

연초, 폭등되었던 국제 곡물 값은 하반기로 오면서 안정세를 찾았다.

지난해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에서의 사료용 옥수수 값은 연초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연말에는 폭등세로 이어져 1997년 4/4분기의



(그림1) 배합사료 가격

평균 가격은 104\$ (C&F기준)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상승세는 1998년도로 이어져 1/4분기는 107\$로 국제 선물시장에서의 곡물 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난의 심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축산업이 불황에 직면하면서 사료용 곡물의 수요는 격감되었고, 그결과 국제적으로 많은 양의 재고가 쌓여 2/4분기 미국 선물시장에서의 옥수수 가격은 1/4분기 보다 10.6%가 낮은 95\$ 선으로 하락되었다. 이 같은 국제 곡물가의 인하는 3/4분기로 가면서 더욱 큰폭으로 떨어져 76\$을 기록했다. 이를 월별로 보면 7월 85\$, 8월 73\$, 9월 70\$로 인하 되었고, 국제 선물 시장

에서의 사료용 옥수수 가격은 연초 대비 35%가 내렸다.

### 나) 국내 배합사료가격

IMF 이후 폭등세를 나타냈던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4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축협중앙회의 배합사료 가격을 기준으로 60일 외상 거래시 포대당(25Kg) 전기 크럼블의 경우 6천9백40원이던 것이 IMF직후인 12월 11자로 7천6백40원으로 인상되었고, 또한 22일자로 9천9백70원으로 추가 인상되어 불과 12일만에 2회에 걸쳐 43.6%가 올랐다.

그러나 1998년 2/4분기들어 국제 곡물 값의 하락과 함께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 사료값의 인하에 불을 당겼다. 사료 가격 인하를 부추긴지 한달

만인 지난 4월 1일자로 9천6백80원, 6월 1일 9천4백원, 7월 16일 9천60원, 8월 13일 8천7백90원, 9월 1일 8천3백60원, 10월 21일 8천1백20원으로 6회에 걸쳐 모두 18.5%가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큰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IMF 이전의 가격과 비교할 때 아직도 17%가 높은 가격이다.

### 3. 사육형태의 변화

육계업은 크게 계약사육과 일반 사육으로 나뉘어 있다. 사육에 임하는 모든 육계농가들이 생산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같지만 일반 사육의 경우 계약사육과는 달리 출하시점의 육계값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근자들어 육계업이 어려워지자 일반사육을 고집하던 농가들마저 계약사육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부쩍 늘었으며 이 같은 현상은 1998년들어 뚜렷히 나타났다.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의 경우 계약사육 농가가 차지하던 비율이 3할 이내에 불과하던 것이 '96~'97년은 5할대로 대등해 졌으며, 특히 1998년 상반기들어 6할대를 넘어서기

가 바쁘게 지난 복경기 이후부터는 7할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사육에 있어 계약 사육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격히 증가되었으며, 이 같은 증가는 육계업의 불황이 심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뒷바침 하듯 1998년 상반기 계열주체에서 생산한 육계는 약 1억2천만수였음을 감안할 때 총사육수수는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시중 구매가 상당수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현재 유통되는 닭고기에 있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4. 산지 육계가격

1998년의 육계가격은 예년에 비해 진폭이 적었던 한해로 꼽힌다.

11월말 현재 수도권 지역의 육계가격은 1천2백69원으로 지난해 1천2백20원에 비해 4%가 높았다. 이를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1천4백64원, 2/4분기 1천2백45원, 3/4분기 1천2백3원으로 사료 파동 직후 가장 높은 시세가 형성되었고, 그후 안정적으로 사료공급이 이뤄지면서 닭고기 생산량은 점진

적으로 증가되어 산지 육계값은 하향 곡선을 그었다.

이를 월별로 보면 지난 3월 들어 생체 kg당 1천8백원에 2주 가까이 거래가 이뤄졌던 반면 4월부터 사료값이 5~6회 인하가 이뤄진 10월 초순의 육계값은 최저 1,150원에 1주간 거래되어 주간 육계값의 진폭은 최대 650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1996년 2천원(2~3월), 1997년 1천6백88원(2월)으로 최고 값이 형성되었고, 최저 값은 1996년 5백17원, 1997년 7백17원으로 값의 진폭은 각각 1천4백83원과 9백71원으로 크게 벌어졌던 반면 1998년의 경우 최고 1천8백원(3월) 최저 8백83원(9월)으로 가격 차는 917원 밖에 나지 않았다.

### 5. 출하체중의 변화

지난 1987년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양념치킨”이란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면서 생체 1.8~1.9kg이던 출하체중을 1.5~1.6kg으로 끌어 내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후 전기구이, 장작구이 등 수많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지만 이때 원료용 닭고기는 앞전과 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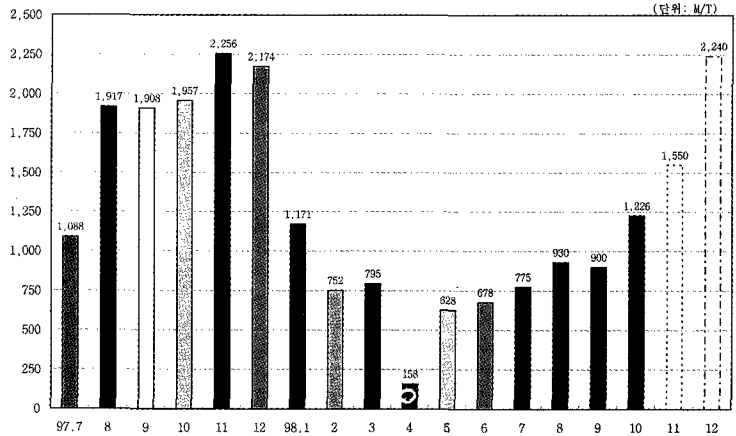
바 없는 채증으로 10년 넘게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1998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다. 바로 “가마솥치킨”(일명 솥뚜껑치킨)이다.

예전부터 산지 육계값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소비자 값이 거의 일정한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오던 한 육계 사육업자가 새로운 상품 개발을 시작하지 2년여 만에 성공을 거둬 직접 외식 산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6월, 개발자 고향인 전남광주를 시발로 가마솥치킨은 8월 서울에 입점한지 3개월만에 1백50여 곳으로 지점수가 늘어났으며 전국적으로 3천여군데로 확산되었다. 이들 업소에서 하루 20만수 이상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은 1마리에 4천원, 2마리 7천원, 3마리 1만원으로 기존 양념통닭에 비해 대략 60%가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 측면에서 볼 때 생체 1.2kg의 체중을 원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예전과는 달리 병아리 입식량에 비해 닭고기 생산량을 20% 이상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그림2〉 닭고기 수입 실적

생산비가 높아지는 부담도 생겼다.

## 6. 냉동 닭고기 수입

지난해 7월 닭고기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급증되었던 냉동 닭고기 수입량은 IMF이후 대폭 감소되는 변화를 나타냈다.

수입 자유화 이전인 1997년 상반기에 수입된 물량은 검역 기준으로 볼 때 6천9백11톤에 불과하던 것이 자유화 이후 급증되기 시작하여 하반기에 수입된 물량은 1만1천3백3톤으로 상반기에 비해 무려 63.5%가 증가되었다.

특히 4/4분기의 수입물량은 6천3백89톤으로 전체 물량에 35%를 차지해 연말로 가면서

수입물량이 급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MF에 영향을 받은 듯 1998년들어 닭고기 수입은 큰폭의 감소가 이뤄져 상반기 수입실적은 모두 4천1백82톤으로 줄었고, 3/4분기도 2천6백5톤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각각 39% 47%가 감소되었다.

이같은 감소는 10월까지 이어져 지난해 보다 37%가 적은 1천2백26톤에 불과했다.

이처럼 닭고기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월별로 보면 지난 4월 1백58톤의 수입 이후 매월 증가가 이뤄졌으며, 12월로 가면서 지난해 수준으로 증가될 것이라는게 관련업계전문가의 견해다.

## 7. 유통인의 무질서

산지에서 유통업이 성행하면서 농가 피해가 속출했다.

힘있는 소수 유통인들끼리 단합하여 산지 육계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인상된 가격을 장기간 지속시키지 못하고 곧바로 조정에 들어가 많은 육계인들이 시달림을 받았다.

특히 닭을 판매한 뒤 대금을 받는데 있어 부도 등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유통업측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소개비를 Kg당 10원에서 20원으로 올려 놓고는 사실상 지켜주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일부 유통인은 육계값이 하락될 때 상인들로부터는 당일 고시된 가격을 받고는 이를 농가한테 결재할 때는 하락시에 판매했기 때문에 D/C할 수밖에 없었다며 생체 kg당 50~100원을 깎고 결제한다. 물론 많은 유통인들이 농가쪽에 서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유통 업자들이 이러한 형태로 판매 대금을 갈취하는 등 예전에 없던 일들이 암암리에 자행됨에 따라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았다.

## 8. 닭고기소비 방송매체에 좌우

방송매체가 닭고기 소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월 27일자 각 매스컴에 국내 닭고기에서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소비자보호원측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때 산지 육계값은 가마솥치킨 등의 소비층로 생체 kg당 1천4백원에 강세를 보이고 있을 때였다. 이때 상승세에 있던 산지 육계값은 곧바로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불과 1주만에 1천1백원으로 인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내용인즉 끊여먹을 경우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는 했지만 실제 날로 닭고기를 먹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말도안되는 문제라 즉시 본회는 소비자원측에 발표된 내용에 잘못이 있었음을 강력히 항의했고, 곧바로 사과성 공문을 받아 냈다. 그러나 산지 육계값이 인하된데 따른 육계농가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1997년 10월 미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에서 캄필로박터균이 검출되었다는 내용과 '96년 국내 사계불법 유통건이 방영되었을

때도 이와 같이 산지 육계값은 폭락한 사례가 있었다.

## 9. 맺는말

1998년의 육계업은 외부 영향에 따라 소비 등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산지 육계값은 그런대로 괜찮은 한 해였다. 단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도 일반 상회는 물론 대부분의 계열주체에서 생닭 판매에 의존함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제 기존의 생닭 소비패턴에 의존하지 말고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신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가마솥치킨과 같은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더욱 증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계인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닭고기에 대한 우수성은 대부분 잘들 알고 있다.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먹지 않고 남들이 먹어주기만을 바라는데 있다. 우리 생산자들 모두가 닭고기 소비 홍보 요원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가족은 물론 가까운 친인척 내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소비홍보를 실시하므로써 닭고기 소비를 늘리는데 적극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양계**